

# 서울의 아가씨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1.	조사자	정화영, 김태연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서울의 아가씨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이시스터즈	작사가	김남석	작곡가	박선길
음반 제작연도	1962년(1964년)	음반 제작사	신세기레코드	음반 규격	310mm×310mm
가사	<p>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맘 좋고 슬기로워                서울의 아가씨는 명랑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랄라랄라랄라라                발걸음 가벼웁게 랄라랄라랄라라                그대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요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맘 좋고 슬기로워                서울의 아가씨는 명랑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랄라랄라랄라라                  서울의 아가씨는 명랑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랄라랄라랄라라                하이힐 소리 높이 랄라랄라랄라라                누구나 반갑게 웃음 꽃을 피워요                  서울의 아가씨는 사랑스런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예쁘고 상냥해                서울의 아가씨는 깡쟁이 아가씨                거리에 불꽃 피면 랄라랄라랄라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p>				

평가	<p>‘이시스터즈’는 김천숙과 김희선(당시에는 김명자)의 김 씨 자매와 이정자의 총 세 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정자 탈퇴 후 김상미가 들어와서 활동했다. 화음이 아름다웠던 이시스터즈는 주로 변안곡을 불렀지만 중요한 창작곡도 남겼다. &lt;서울의 아가씨&gt;, &lt;울릉도 트위스트&gt;, &lt;남성금지구역&gt; 등의 창작곡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다.</p> <p>&lt;서울의 아가씨&gt;는 ‘서울의 아가씨’에 대한 동경을 그린 노래이다. 노래 속에서 ‘서울 아가씨’는 “멋쟁이에 맘 좋고 슬기롭고 명랑하고 예쁘고 상냥한” 아가씨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래 마지막 부분에 ‘서울의 아가씨’를 “각쟁이 아가씨”라고 해서 당시 서울 아가씨에 대한 양가적인 통념을 드러내기도 했다.</p> <p>1960년대는 국가 주도로 산업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고향을 떠난 농촌과 지방의 인구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도시와 서울은 종종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특히 서울의 아가씨에 대한 선망과 동경도 있었는데, &lt;서울의 아가씨&gt;는 그러한 선망과 동경의 마음을 밝고 경쾌한 선율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p> <p>&lt;서울의 아가씨&gt;는 이후에도 이시스터즈의 음반에 수록되었는데, 1973년에 발매된 「황우루 기획작품집」과, 「이시스터즈 히트앨범」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노래는 1960년대의 서울 풍경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노래이다.</p>
----	---

※ 발표시기로 ‘서울을 노래하다, 대중가요’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문헌조사결과 발표시기가 다를 경우 괄호 안에 추가 표기

## 2.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li> <li>-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li> </ul>
--


## 3.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li> <li>-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li> </ul>
---

##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이시스터즈 (1965년 데뷔 ~ 2012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 김희선, 김천숙 자매와 작곡가 겸 밴드마스 박선길과 함께 걸 그룹 허니김스 결성 이후 추가 멤버 이정자의 성을 따서 만든 '이시스터즈' 그룹 이름 결정, 미8군 무대 소속 가수로 활동</li> <li>- 1962년 L.K.L 레코드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으로 데뷔</li> <li>- 1963년 스플릿 음반 발매</li> <li>- 1964년 신세기레코드에서 첫 독집 발매</li> <li>- 1966년 TBC 방송가요대상 중창단상 수상, 제1회 KBS 고운노래대상 금상 수상</li> <li>- 1967년 멤버 '이정자' 탈퇴, 새로운 멤버 '김상미' 영입</li> <li>- 1973년 '이시스터즈 10년 결산' 독집음반을 마지막으로 활동 중단</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 「서울의 아가씨」</li> <li>- 1964년~1966년 「워싱턴 광장」, 「목석같은 사나이」, 「별들에게 물어봐」, 「남성금지구역」, 「모래위에 적어본 이름」,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li> <li>- 1967년 「울릉도 트위스트」</li> <li>- 1970년 「날씬한 아가씨끼리」</li> <li>- 1971년 「병아리 데이트」</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 KBS 연말 톱 싱어 경연대회 2등</li> <li>- 1965년 제1회 KBS 고운노래대상 금상</li> <li>- 1966년 TBC 방송가요대상 중창단상</li> </ul>		
기타사항	-		

※ 출처: 한중 대중가요 앨범6000 [서울의 아가씨] (<http://terms.naver.com>)를 바탕으로 재정리

## 6. 기타사항

### □ 가요앨범 리뷰 - 서울의 아가씨

#### 이시스터즈의 결성 과정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난 3살 터울 자매 김천숙, 김명자(개명 김희선)은 학창 시절부터 각종 노래자랑 대회를 휩쓸 만큼 노래 재능이 뛰어났다. 멜로디를 맡은 언니 김천숙은 상명여고에서, 알토를 맡은 동생 김명자는 수도여고 재학 시절 둘 다 합창단원으로 활약했다. 1961년 김희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자매는 작곡가 겸 밴드마스 박선길과 인연을 맺으며 미8군 프로덕션 화양에 소속되어 걸 그룹 허니김스를 결성했다. 1962년 KBS의 연말 톱 싱어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한 여성 보컬 그룹이 불참한 바람에 대타로 나간 이들은 2등에 입상했다. 이를 계기로 음반 취입의 기회를 잡아 1962년 L.K.L레코드에서 데뷔 음반인 10인치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을 발표했다. 1963년에는 멜로톤 사중창단과 10인치 스플릿 음반을 연이어 발매하면서 처음 가요를 취입해 “꿈같이 달콤한 음성으로 노래하는 골든 아가씨들”이란 호평을 받았다.

#### 복잡한 팀 이름 결정 과정

허니김스가 소속된 쇼단 작곡자 박선길은 하모니 위주의 여성 트리오를 만들 심산으로, 추가할 멤버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언니 김천숙은 철도청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노래 잘하는 동료 직원 이정자를 데려와 트리오를 결성했다. 세 사람 중 두 명이 김 씨라 김시스터즈로 팀명을 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미국에서 활동하던 김시스터즈가 있었기 때문에 메인 보컬 이정자의 성인 ‘이’를 따서 이시스터즈로 팀 이름을 정했다. 사실 이들 이전에도 이시스터즈는 이미 존재했다. 동갑내기 진짜 이 씨들로 구성했는데, 경기 포천 출신 이훈영, 전북 군산 출신 이문자, 부산 출신 이난희였다.

이들은 1960년 5월 미8군 쇼단 힐 톱 밴드에서 팀을 결성했지만 2개월 만에 쇼단이 해체했다. 이에 1961년 3월 서울중앙방송국(KBS의 전신)의 아마추어 쇼 프로그램에서 이달의 톱 싱어로 선발되어 1961년 여성지 「여원」 7월호에 대서특필되었다. 김시스터즈를 이들 기대주로 소개되었지만 이후 활동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 번안곡으로 구성한 이시스터즈의 첫 독집

트리오를 구성한 이시스터즈는 미8군 프로덕션 화양의 쇼단 ‘어라운드 더 월드’ 무대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미8군과 일반 무대에서 대중가요는 물론,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달콤하고 경쾌한 팝송을 주요 레퍼토리로 불렀다. 걸그룹 이시스터즈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64년 신세기레코드에서 첫 독집을 발매한 후부터였다. 총 12곡의 수록곡은 모두 당대 히트 팝송의 번안곡이다. 번안은 김문웅이 맡았고, 편곡과 오케스트라 지휘는 작곡가 박선길이 담당했다. 타이틀곡 <워싱턴 광장>이 크게 히트했다. 이후 이 노래는 1960년대 걸 그룹들은 거의 다 취입했던 베스트 번안곡으로 각광받았다. 미8군 무대에서 익힌 세련된 무대 매너와 새로운 감각의 노래를 선보인 이시스터즈는 서구문화를 흠모했던 당시 사회분위기와 대중적 취향에 편승해 단숨에 인기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 1960년대를 대표하는 슈퍼 걸 그룹

맑고 발랄한 고역의 화음을 구사했던 이시스터즈는 1966년 TBC 방송가요대상 중창단상 수상에 이어 제1회 KBS 고운노래대상 시상식에서도 ‘모래위에 적어 본 이름’으로 금상을 차지했다. 이에 신세기레코드는 수상 기념 음반을 발표했다. 이시스터즈는 1968년 배인순, 배인숙 자매가 결성한 펄시스터즈 등장 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1964년 발표한 이 앨범의 타이틀곡 <워싱턴 광장>을 시작으로 <서울의 아가씨>, <목석같은 사나이>, <별들에게 물어봐>, <울릉도 트위스트>, <남성금지구역>, <모래위에 적어본 이름>,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등 이들이 남긴 히트곡들은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생기 넘치는 발랄한 화음이 돋보이는 이시스터즈는, 당시 전성시대를 이룬 남성 사중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960년대를 대표하는 슈퍼 걸 그룹으로 평가받았다.